

서면평가 종합심사평

2018 지역활용형 VR·AR 콘텐츠 제작지원 서면평가 결과 종합심사평

금번 서면평가(심사)에서는 각 지역별 단체와 업체의 많은 고민을 볼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.

전체적으로 과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으며,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사업 추진 및 역할에 노력한 부분이 엿보였습니다.

특히,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분야인 VR과 AR을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고민이 있었으며, 지역의 특화된 산업과 접목을 하고자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.

다만, 지역별 개발사 발굴도 차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아울러 VR/AR의 특성상 비슷한 방향이 많이 보이거나, 분야의 특성상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.

차후 각 지역별로 특화된 콘텐츠 발굴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.